

나주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미식 관광 선도

2029년까지 4년 연속...영산강정원 일대서 9~10월 열려
음식 전시관·경연 프로그램·판매 장터·체험 등 콘텐츠 다채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개최지로 나주시가 선정돼 남도 음식문화와 미식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공모에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나주시는 지난 11월 공모 신청 이후 개최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지난달 31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나주에서는 영산강정원 일대를 중심으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음식 전시관, 경연 프로그램, 판매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식 콘텐츠가 마련된다.

올해로 30여 년의 전통을 맞이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의 고유한 맛을 계승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의 대표 축제다. 나주시는 개최 기간 중 최소 한 차례는 행사 규모를 '국제 행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도 음식문화 전시관을 비롯해 음식 경연 대회,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터, 다채로운 미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유지는 나주시가 추진 중인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축제를 단순한 음식 행사를 넘어 영산강의 생태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미식 관광 플랫폼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개최지 선정은 나주의 우수한 음식문화 경쟁력과 축제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남도 음식의 품격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주를 남도 미식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는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보건소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강진 반값여행에 특산물 매출 120% '대박'

초록민음 온라인 쇼핑몰 개편
정책 시행 2년만에 34배 성장
쇼핑몰 회원수도 15배 증가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처음으로 강진 반값여행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34배 성장한 수치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강진 반값여행을 시행하면서 초록민음 온라인 쇼핑몰(사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2.0 시스템을 쇼핑몰에 접목시켜 반값여행 페이백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값여행은 강진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용한 금액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오프라인은 물론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의 매출액 중 2024년에는 50%, 2025년에는 64%에 가까운 금액이 반값여행



혜택을 본 관광객으로 파악됐다. 쇼핑몰 회원수도 15배 증가하면서 반값여행 효과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정부에서 강진 반값여행을 사범 도입,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강진군의 반값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

다.

올해 강진 반값여행은 오는 19일부터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22일 이후 정산이 되면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에서 페이백 사용이 가능하다. 반값여행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미래형 축산 생태계 조성

60억 투입 생산성 향상·위생관리 지원...축산농, 30일까지 신청

함평군이 미래형 축산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6년 축산분야 지원 사업 66개 사업에 총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농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 방역·위생 관리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 타당성 검토와 평가, 심의를 거쳐 2월 중 2026년 축산분야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농가 맞춤형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분야 30종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등 가축 위생 분야 16종 ▲축산농가 농

장 입구 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가축방역 분야 5종 ▲조사료 적재기(그래플) 지원사업 등 한우 육성 분야 15종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축산농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각 사업 지침에 명시된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 축산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사평빨래방' 1년만에 이용률 2배

전국 최초 공공 운영...마을별 세탁일 지정·배달 서비스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화순군의 '공공 빨래방'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사평면에 공공 빨래방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별로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해 놓고 마을회관 등에 이불 세탁물을 모아놓으면 전용 차량으로 수거한다.

대형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건조 작업을 거쳐 4일 이내에 다시 배달해준다.

겨울이불 1채당 1만원, 그 외 이불 1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부과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 사평면 주민은 50% 할인받는다.

대형 작업장과 별도의 외부 건조장을 동시에 갖춰 하루 150~200채가량 많은 이불을 세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 사평 빨래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불 세탁 서비스 제공 횟수를 마을별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그 결과 이용률은 1년 만에 3920가구에서 7574가구로 19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 관계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라며 "화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7억보다 값진 70만원...장흥중 학생들의 '나눔'

축제·아나바다 수익금 모아 장학금
2년째 기부...누적 금액 156만원

장흥중학교 학생들이 2년 연속 인재육성장학금을 기부해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장흥중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5일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70만원을 기탁했다.

학생들은 아나바다 행사와 학교 축제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장흥중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해 기부에 이어 올해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총 156만원에 이른다.

이번 기부는 학생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기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2년 연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라며 "이번



장흥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지난 5일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7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흥군 제공>

70만원의 기부금은 금액의 크기를 넘어 7억원 보다도 값진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또 다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찾아가는 군민과 대화

담양군, 325개 마을 순차 방문

담양군이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과 마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올해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군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의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날인 7일에는 담양읍 내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했고, 군은 앞으로 2개월간 12개 읍·면 325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



정철원(오른쪽 두번째) 담양군수가 '마을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에게 민원 해결 상황과 새해 군정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을 듣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기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군

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가해자 지목 간부 공무원 2명 대기발령...16일까지 피해 사례 접수

장성군 공직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져 공무원노조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 장성군지부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장성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 2명은 현재 대기발령 등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장성군지부는 해당 간부들로부터의

피해 사례는 물론,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노조는 오는 16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진홍 공무원노조 장성군지부장은 "내부 여론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나쁜 관행이 폭발했다는 반응"이라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 문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속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군도 이와 별개로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